

데스크칼럼

정현아

경제부장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2주일 여가 지났다. 국민들은 내란사태의 진상규명과 법적 단죄, 경제회복을 한 목소리로 주문하고 있다. 내란 이슈는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 전제인 만큼 이론의 여지가 없고, 뺨뽏수룩 좋을 일이다.

경제문제는 코로나로 시작된 윤석열 정부를 거쳐 오는 동안 극악해진 상황일지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지만 출범과 동시에 일의 선후와 경증을 가려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미더워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원칙이다. 하지만 이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진짜 관심사는 과연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광주와 전남지역의 경제를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며 살려내느냐이다.

가히 압도적이었다. 지난 1997년 대선 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지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광주지역의 지지율은 84.77%. 전남은 그보다 더 높은 85.87%에 이르렀다. 경상도나 서울, 경기지역의 인구와 득표율 등을 종합해보면 '압도적인 지지', 승리에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분석이 정치적 수사나 공치사가 아님이 확실하다.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지역에 7가지를 공약했다. AI국가 시범도시 건설과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 영산강, 광주천 수변 활력도시 조성사업,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인프라 구축,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등이다. 전남에는 공공의대 설립을 비롯해 여수석유화학 대전환, 해상풍력·영농형 태양광 집중 육성, 신재생에너지 허브 미래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동북아대표 관문공항 육성·초광역 교통망 확충, 미래 농수축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문화 허브 조성을 약속했다.

역대 선거 때 각 후보들이 제시했던 공약이 모두 실행됐다면 광주와 전남은 이미 두바이나 뉴욕처럼 변해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정권마다 사정이 있고 정치 상황도 녹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유를 찾자면 한도 끝도 없을 터.

문득 떠오르는 선배 언론인의 하소연 한 토막.

선배는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인사가 고향의 군수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자 언론 대응방법이나 후보의 메시지 관리 등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후 군수가 된 그는 “내가 군수가 된 것은 다 자네 덕일세. 이 은혜 잊지 않음세”라며 고마움을 표시했지만 선배는 행여 부담이 될까 군수 임기 동안 단 한 건의 부탁도 청탁도 하지 않았다. 딱 한번 고향 가는 길에 잠깐 만났을 때 목직한 기념품 하나를 받았을 뿐이다.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으로 주는 소금 한 봉지였다.

훗날 해당 군수가 집행한 언론 홍보예산 내역이 공개됐는데, 그걸 보고는 씁쓸하고 본전 생각도 나면서 만감이

교차했다고 한다. 조금이라도 군수와 인연이 닿는 언론인들은 홍보 예산을 톡톡히 챙겨갔던 것이다.

다행스럽게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 사람은 유별나고 집권 초기 정부의 모습을 보면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공약이든 정책이든 결국에는 정부 조직을 통해, 더 정확히는 공무원이라는 ‘사람’을 통해 추진된다. 광주·전남 출신 공무원들이 요직에 속속 발탁되고 있다. 지난 정부 때 이 동네 인재의 씨를 말렸던 것을 복원하고 진짜 ‘힘을 쓸 수 있는’ 자리로 상향시키고 있음을 실감한다.

동시에 광주시와 전남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정부의 이런 행보에 맞춰 양 시도도 공약실현 TF팀 등을 가동하며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으니 인내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요즘 MZ 세대들과 식사를 하다보면 종종 놀란다. 예를 들어 이태리 레스토랑에 갈 경우 대부분은 단체식의 효율과 밥 사는 사람의 형편 등을 고려해 무난하고 저렴한 세트 메뉴 위주의 파스타나 피자 등을 주문해 함께 나눠먹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젊은 친구들은 “저는 안심 스테이크를 먹겠습니다. 굵기는 미디엄으로요”라는 식으로 당당하고 구체적으로 말한다. 대세에 주눅 들지 않고 본인의 희망사항을 백퍼센트 충족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게 바라던 새 정부를 압도적인 지지로 만들었으니 호남은 당당하게 요구할 만 하다. 철저히 받을 준비를 하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또 노골적으로 우리 필요를 요구해 충족할 일이다. 선처와 처분만 바라다 볼광 소금 한 봉지를 받은 선배 꼴이 되지 않으려면.

기고

서동균

광주 동구 문화관광 열라이언스 회장
교육학 박사

광주 지역 사회, 주민들과 협력하는 관광 사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광주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지역 자원의 가치 재발견, 지속 가능한 경제적 발전,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는 지역 주민과 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즉 자연을 활용하는 전남과 달리 광주는 문화와 예술을 잘 활용해야 한다.

광주 동구는 체류형 야간 관광도시로 지역 골목 경제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특히 도시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주거와 교육 환경이 매우 중요해졌고, 여행객이 아니더라도 거리에서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족을 만나면 즐겁고 모두가 기분이 좋아진다.

광주는 어린이와 그 가족을 위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기에 가장 활동적이며, 비용을 많이 쓰는 30~40대 가족들이 지금은 순천·여수 등 타지역으로 떠나는 기이한 현상이 계속되는 이유다.

그 이유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어린이문화원)~전통시장(남광주시장, 대인시장 등)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져 있으며,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이 있어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이다. 이처럼 손자·부모·조부모 3대를 모두 끌어들이 수 있는 유일한 도시가 동구다.

광주시, 동구를 체류형 야간 관광도시로 육성해야

최근 각 지자체에서 관계 인구를 늘리기 위해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동구의 체류를 위한 조건은 바로 지역사회에 있다고 생각한다. 동구에는 전일빌딩24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운동기념관이 있고 총창로와 충장축제, 버스킹일드컵, 동명커퍼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로 방문객이 가장 많은 편이다. 하지만 주변에는 대형 버스주차 공간이 없어 수많은 관람객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관광숙박업소와 주변 소상공인의 매장을 이용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평소엔 업무상 출장으로 이동하는 직장인과 사업가들이 저녁 식사와 가벼운 진목을 위한 맛집, 선술집, 노래, 당구장 등을 이용하려는 경우가 많다. 현재 동구는 그리 환경이 좋지 않다. 광주 동구는 하루빨리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예술의 거리나 대인시장, 구시청의 인허가 및 기반 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요즘 가장 핫한 동명동은 현재 중년이나 아닌 청년에게 특화돼 있어, 세대별 조화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 동구는 일찍부터 광주의 중심으로 준비된 인문학 도시이다. 문화전당 주변, 아시아 음식 거리 정책보다는 북카페 거리를 조성해 문화 향유와 상업 활동의 조화를 이끌고 있다.

강진군이 ‘반값 여행’ 이벤트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역에서 숙박이나 음식, 체험하며 사용한 금액 절반에 대해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파격적인 정책을 2년째 시행 중이다.

지역화폐는 나중에 강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다시 한번 강진을 와야 하는 이중 유입 효과로 기대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올해 광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광주만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매력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문화 예술과 관광을 조절 연결하는 조직이나 문화관광도시 발전 위원회도 없는 것이 현재 광주의 모습이다.

문화예술 중심인 광주, 관광도시로 완성되려면 여행에 필수품인 콘텐츠도 필요하지만 하드웨어, 즉 거리와 도시의 정체성이 정확히 드러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일빌딩245, 동명동 등을 유지해 주는 기능이 있는 관광호텔이 필요하다. 로컬 문화상품이나 예술품들의 매장이 함께 있는 숙박시설이 많아야 지역 관광의 자원이 될 것이기에 좋은 행사를 만들어 내듯, 광주시는 민간 공간 활용을 위해 적극 지원·육성해야 한다.

또한 민간 기업은 지역사회의 자본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투입된다. 즉 24시간 365일 동안 전기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공간 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시급하다. 정장보다 캐주얼 문화로 바뀌면서 와이셔츠, 양복점, 넥타이, 구두 등 관계 업종이 무너지고 넷플릭스가 활성화되면서 총창로에 자리한 극장은 물론 관련 업종이 무너졌다.

도시 재생과 원도심 활력 증진, 상권 활성화 연구 및 실천을 지속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광주 문화관광 도시 발전특위’가 구성되길 바란다.

기고

나규현

광주환경공단 하천관리처장



높이 1189m의 무등산에서 발원하여 19.5km의 광주의 중심을 관통하는 광주천은 오랜 세월 광주의 역사와 함께 흐르며,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을 담아 온 광주의 심장과 같은 하천이다.

특히 광주의 도심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광주천은 도보와 자전거를 즐기는 이들에게는 건강을, 연인과 가족,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위안을, 조용히 강가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이들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소중한 일상의 쉼터가 되어주면서 이제 광주천은 단순히 ‘물길’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다양한 조정시설과 녹지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도심 속 야생 조류와 야류를 관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태 학습장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광주천은 오늘도 건강하게 흐른다”

이러한 공간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자연과의 접점으로 매우 중요하며, 광주천은 바로 그 접점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과거 도시발달과 산업화 과정에서의 하천의 역할은 부족한 개발 인프라를 확보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 복개되거나 도로, 상업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로 뒤덮인 회색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2000년 초반부터 이루어진 시민과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끝에 수질개선, 수량확보, 생태습지 조성, 어류서식처, 산책로 등이 꾸준히 조성되었으며 지금의 다양한 동식물의 터전이 되는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하였다.

필자가 근무하는 광주환경공단은 대부분 시민들이 하수나 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로 많이 기억하신다.

그러나 환경공단에서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건천이 되어 메밀라 버리는 광

주천에 치병동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에서 BOD 2ppm 수준의 깨끗하게 정화된 물과 영산강 하천수를 광주천 상류인 하동과 선교동으로 하루 10만톤까지 이송함으로써 광주천이 마르거나 고여있지 않고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물이 흐르게 하는 일이다.

또한, 광주천 산책로 주변의 쓰레기 정리와 제초 작업, 우천시에는 징검다리를 점검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계절마다 유채와 코스모스 등을 심고 가꾸며, 여름철에는 물놀이장을 조성하는 등 광주천에 시민과 자연이 함께하는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이 광주천을 더욱더 품격 있게 가꾸고, 다음 세대에게도 이 생명이 흐르는 자연의 가치를 물려주는 일이라 생각한다.

광주천이 과거의 아픔을 딛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 생명의 물결이 광주의 내일을 밝히는 새롭고 힘찬 흐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OPINION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사설

자영업 대출 역대 최대…종합 지원책 절실

광주·전남 지역 숙박·음식점업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가 2조8000억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지역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광주 1조 4939억원, 전남은 1조3200억원 등 2조81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광주 지역 숙박 및 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매년 증가했다.

2019년 4분기 8429억원에서 2020년 2분기 9969억원이었던 대출 잔액은 2022년 1분기 1조820억원, 2023년 1분기 1조1855억원, 2024년 1분기 1조3441억원을 기록하더니 이번엔 1조4939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남도 마찬가지로서 2022년 1분기 1조896억원, 2023년 1분기 1조 1608억원, 2024년 1분기 1조2214억원으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는 1조 3200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전국적으로 업황이 부진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매출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전국의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불변지수)는 지난 2023년 2분기부터 8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 자영업자 감소세도 두드러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현재 광주시 자영업자는 13만9000명으로 1년새 1만1000명 줄었고 전남 자영업자 수도 29만3000명으로 1년전 30만1000명보다 8000명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장사가 안돼 대출로 버텼던 지역 자영업자들이 최근 소비마저 부진하자 결국 줄줄이 폐업을 결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이제 내수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

또 빛에 허덕여 폐업으로 물리는 자영업자를 포함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대규모 채무 조정과 탕감을 포함한 종합 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광주 복구 중기·소상공인 정책 ‘눈에 띄네’

광주 복구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이 눈에 띈다. 지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무역촉진단을 운영하거나 지역화폐를 발행기로 한 것이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다.

광주 복구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12개 기업 등으로 구성된 광융합무역촉진단을 베트남 하노이와 태국 방콕에 파견했다.

광융합무역촉진단은 지역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성장 기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당시 필리핀, 베트남으로 파견된 무역촉진단은 934만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으며 지난해에는 미국 LA와 샌디에이고 등 미주 시장에서 1000만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올해는 역대 최대인 1750만달러(24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광통신, 광의료, AI 기반 광융합기술 등 3개 분야 12개 기업이 현지 기업과 비즈니스 미팅, 수출상담회를 진행해 680만달러 규모의 실계약과 1070만달러 상당의 수출 약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무역촉진단이 이같은 성과를 거둔 것은 복구가 스마트도시와 스마트팜 확산으로 광융합 기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과 태국을 대상으로 참여 기업의 산업 분야와 수요 바이어 유형 등을 사전 분석해 맞춤형 매칭을 진행한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구는 또 지역 자치구 중 처음으로 지역화폐인 ‘부끄머니’를 9월 중 100억원 규모로 발행기로 했다.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 화폐는 복구가 올해 첫 결재안건으로 처리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즉,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지역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다음달 18일까지 홍보 활동을 펼쳐 현재 6300여개인 가맹점수를 지역화폐 발행 전까지 총 1만개 이상 늘릴 계획이다.

이같은 적극 행정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월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광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